

# 이정민, KLPGA 챔피언십 우승...첫 '메이저 퀸' 등극

### 23언더파 265타 72홀 최소타 타이 기록...투어 통산 11승 전예성, 18홀 최소타 타이·18홀 최다 버디 신기록 달성

이정민이 시즌 첫 메이저 대회 왕좌에 등극했다. 이정민은 28일 경기도 양주 레이크우드 컨트리 클럽(파72-6554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크리스에프앤씨 제46회 KLPGA 챔피언십(총상금 13억원)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로 6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 합계 23언더파 265타를 기록한 이정민은 19언더파 269타의 전예성을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 2억3400만원을 받은 이정민은 투어 통산 11승을 거뒀고, 메이저 대회에서는 처음 우승했다.

이 대회 전 최강 우승은 2022년 12월 PLK 퍼시픽링스 코리아 챔피언십으로 16개월 전이었다.

이정민이 국내에서 열린 스트로크 플레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15년 6월 제5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이후 이번이 거의 9년 만이다.

이후 이정민은 2016년 3월 중국에서 열린 월드 레이다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 2021년 10월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에서도 정상에 올랐지만 이 대회는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직전 우승인 2021년 PLK 퍼시픽링스 코리아 챔피언십은 베트남에서 대회가 열렸다.

이정민이 이날 작성한 23언더파 265타는 KLPGA 투어 72홀 최소타 타이 기록이다.

이번 대회 이정민 이전에는 2013년 8월 MBN·김영주골프 여자오픈 김하늘, 2020년 8월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유혜란이 23언더파 265타를 기록한 바 있다.

1992년 1월생인 이정민은 또 이번 시즌 첫 30대 우승자가 됐다.

지난 시즌에는 2023시즌 대회로 열린 2022년 12월 PLK 퍼시픽링스 코리아 챔피언십 이정민과 2023년 9월 대보 하우스오픈 박주영 등 2명의 30대 우승자가 나왔다.

3라운드까지 2위 방신실에 1타 앞선 단독 1위였던 이정민은 초반 8개 홀에서 버디 6개를 몰아치며 일찌감치 독주 체제를 굳혔다.

방신실은 전반에 1타만 줄여 이정민과 격차가 벌어졌고, 전예성이 이날 하루에 버디만 12개로 12언더파를 치고 추격해왔지만 3라운드까지 선두였던 이정민과 10타 차이를 뒤집기는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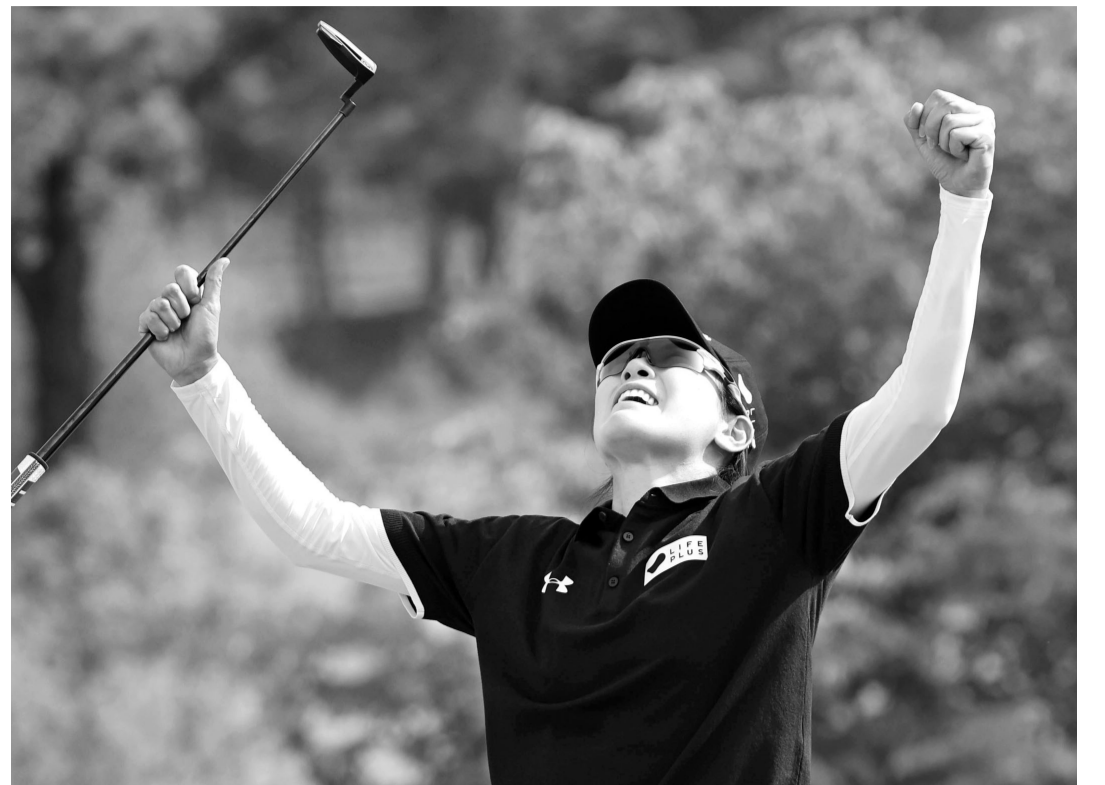
2위에 오른 전예성은 이날 버디 12개로 12언더파의 성적으로 KLPGA 투어 18홀 최소타 타이 기록, 18홀 최다 버디 신기록을 달성했다.

이정민은 먼저 경기를 마친 전예성에 3타를 앞서다가 16번 홀(파4) 버디로 4타 차를 만들어 우승을 사실상 예약했다.

이정민은 전날 3라운드 17번 홀(파3)에서는 홀인원으로 7600만원 상당의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부상으로 받아 우승 상금과 합하면 3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다.

방신실과 박지영, 김민별이 16언더파 272타로 공동 3위에 올랐고,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이다연은 8언더파 280타, 공동 26위로 대회를 마쳤다.

윤이나는 12언더파 276타, 단독 9위에 올라 올해 필드 북극 이후 네 번째 대회에서 첫 '톱10'을 달성했다. /연합뉴스



이정민이 28일 경기 양주시 레이크우드CC에서 열린 '크리스에프앤씨 제46회 KLPGA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우승 확정 후 환호하고 있다.

## 동신대, 대학태권도개인선수권서 메달 11개 획득



동신대 태권도학과가 지난 24일 제51회 전국대학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에서 총 11개의 메달을 획득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신대 제공>

### 이성훈·조희연 겨루기 최우수선수상 김소임 코치 최우수지도자상 수상

동신대 태권도학과 선수단이 '제51회 전국대학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에서 11개의 메달을 휩쓸며 활약했다.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경남 통영실내체육관

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동신대는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따냈다.

겨루기 종목에서 금 4개, 은 1개, 동 2개를 획득한 선수단은 조별로 진행된 품새 종목 개인전에서 금 1개, 은 1개, 동 2개를 더했다.

또한 이성훈과(1년) 조희연(3년)은 겨루기 부문에서 각각 남녀 최우수선수상을, 김소임 코치는 최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

김철민 동신대 태권도학과장은 "2002년 출범해 올해 3년째인데 설립 이후 해마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 태권도의 강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30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겨루기 단체전과 개인전을 비롯해 품새, 개인종합 격파, 태권체조, 팀대항 종합경연 등 다양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김진아 기자 jinggi@

## 광주·전남 복서들, 전국종별복싱선수권대회서 '금빛 펀치'

### 동구청 한영훈·광주체중 이창욱·전남체중 차태영 금메달

광주·전남 복서들이 '2024전국종별복싱선수권대회'에서 선전했다.

광주동구청 복싱단 한영훈이 금메달을 따냈고, 유기현과 박현우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한영훈은 남자일반부 63.5kg에서 부전승으로 4강에 오른 뒤 준결승과 결승에서 연달아 기권승을 기록하면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유기현과 박현우는 각각 남자일반부 67kg과 75kg에서 2위에 올랐다.

남부대 복싱부에서는 2개의 동메달을 쟁겼다.

무도경호학과 1학년 이해주와 김규현이 각각 여자일반부 50kg과 남자대학부 54kg에 출전해 3위를 기록했다.

중·고등부 학생들의 활약도 돋보였다. 광주체중 이창욱(2년)과 전남체중 차태영(3년)은 각각 남자 중등부 42kg, 57kg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창욱은 결승에서 김정운(김정완 챔피언십)을 만나 판정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차태영은 결승에서 김홍준(신승철용인대복싱클럽)을 꺾고

1위에 올랐다.

전남체고에서는 정광진(1년)과 황재하(3년)가 각각 남자고등부 48kg와 71kg에서 은메달을 따냈고, 장시는(2년)이 여자고등부 50kg에서 동메달을 더했다.

광주체고에서는 민혁(2년)이 남자고등부 +92kg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대한복싱협회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진행됐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2025년 목포서 만나요" 생활체육대축전 성료

### 광주·전남 선수단 금 18·은20·동28...메달 66개 획득

2024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광주·전남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선전했다.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이번 체전에서 광주·전남 선수단은 총 66개의 메달(금18, 은20, 동28)을 획득했다.

광주시체육회 선수단은 총 27개(금4, 은8, 동15)의 메달을 거머쥐었다.

야구·줄넘기 종목 종합 3위를 기록한 시체육회는 태권도·스쿼시·합기도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냈으며 수영·육상·검도·소프트테니스 등에서 은메달을 수확했다.

테니스·족구·야구·축구 등 종목에서도 동메달이 쏟아져 나왔다.

전남도체육회 선수단은 총 39개(금14, 은12,

동13)의 메달을 따냈다.

배구 남자일반부 금메달·여자일반부 동메달을 획득하며 종목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육상·그라운드골프·양궁 등에서 금메달이 나왔다.

도체육회는 검도·육상 등에서 은메달을, 배드민턴 등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체전을 마무리했다. 한편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목포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28일 열린 대회 폐막식에서 페넨트기를 전달하며 "차기 개최지로서 전남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한국 '요트 간판' 하지민, 파리 간다

### 5회 연속 올림픽 출전

한국 요트 역사의 '살아있는 전설' 하지민(해운대구청)이 파리행 티켓을 확보, 5회 연속으로 하계올림픽 무대에 나선다.

28일 대한요트협회에 따르면 하지민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열린 프랑스 남부도시 이에르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최종 예선 남자 레이저급 경기에서 우승, 시상대 맨 위에 섰다.

11차례 레이스에서 벌점 49를 쌓아 에스토니아의 칼마르틴 람포(55점)를 제쳤다.

이로써 해당 종목 1위에 주어지는 파리 올림픽 출전권도 따냈다.

요트는 경주 별로 순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1위 1점, 2위 2점을 받는 식이며 최종 경주는 두 배를 부여한다. 벌점이 가장 낮은 선수가 우승한다.

1인승 딩기요트(엔진과 선실을 갖추지 않고 바람의 힘으로 항해)를 타는 하지민은 한국을 넘어 명실상부 아시아 최고 요트 선수다.

2010년 광저우, 2014년 인천에 이어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아시아 개인 3연패를 달성했고, 지난해 항저우 대회에



서는 은메달을 땀다.

1989년생 하지민은 2008년 베이징 대회를 시작으로 2021년 열린 2020년 도쿄 대회까지 4회 연속 올림픽 무대를 밟은 '올림픽 베테랑'이기도 하다.

최고 성적은 도쿄 올림픽 당시 기록한 7위였다. 한국 요트 선수가 올림픽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건 하지민이 최하다.

이번 파리 대회를 통해 올림픽 5회 연속 진출자로 기록될 하지민은 이은철·진종오(이상 사격), 윤경신(남자 핸드볼), 오성욱(여자 핸드볼·이상 5회 연속 출전) 등 종목별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범죄도시4
- 2관 범죄도시4
- 3관 범죄도시4, 몬스터 프렌즈
- 4관 범죄도시4, 쿠푸맨4
- 5관 범죄도시4
- 6관 범죄도시4
- 9관 남은 인생 10년, 챌린저스, 댓글부대
- 7관씨네극장 쿠푸맨4, 파묘, 오멘: 저주의 시작
- 8관씨네극장 파묘, 댓글부대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5월

**광주상설공연(5월)**  
 일시 : 2024-05-04(토) ~ 2024-05-26(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광주시립발레단 제137회 정기공연 'DIVINE'**  
 일시 : 2024-05-24(금) ~ 2024-05-25(토)  
 05.24(토) 19:30  
 05.25(토) 15:00, 19: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502 / 062-522-8716

즐거움

**문화산책**